

바이브 기획

AI 시대, 기획 산출물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2025.12.06

강사 소개

윤태섭

부트페이 CTO



개발 경력 20년



1주일에 1 MVP 제작 중



YouTube @AI잡돌이

충격적인 이야기

40대 판교 개발자, 억대 연봉 받던 분이

"아이디어만 주시면 제가 개발해드릴게요.
월 5만원만 구독료 내주세요."

예전에는 기획자가 개발자 눈치 보던 시대

지금은 개발자가 도메인 전문가를 찾는 시대

하지만, 조건이 있다

기획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개발자들의 속마음



하루

프로토타입



이틀

MVP



일주일

배포

"기획도 하루이틀이면
되지 않아?"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브 코딩, 뭐가 다른가

옛날 개발

설계 → 코딩 → 테스트 → 수정

완벽하게 설계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함

바이브 코딩

"이거 만들어줘" → 결과 → "고쳐줘" → 반복

일단 만들고, 고치고, 또 고치고

완벽하게 설계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서 설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진짜 바이브 기획 =

산출물의 형태가 바뀌는 것

✖ 예전 산출물

→ PPT 50장

→ 예쁜 표, 다이어그램

👤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

✓ 바이브 시대 산출물

→ 마크다운 문서

→ 구조화된 텍스트

🤖 AI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

AI가 기획서를 읽는다

예전: 기획서를 개발자가 읽음
→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예쁘게

지금: 기획서를 AI가 읽음
→ "이거 만들어줘" 하면 바로 구현

마크다운으로, 구조화된 텍스트로,
AI가 바로 읽을 수 있게

현실: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전반부

마크다운으로 기획하기

AI가 읽는 형태로 만들기

핵심 - 새로운 방식

후반부

전통적 산출물로 변환하기

사람이 읽는 형태로 바꾸기

현실 - 회사가 요구하는 것

Claude Code: 터미널에서 일하는 AI

웹 AI (ChatGPT, Claude)

브라우저에서 채팅

대화 → 복사 → 붙여넣기

Claude Code

터미널에서 바로 작업

파일을 직접 읽고, 직접 만들어줌

복사-붙여넣기가 없어요.

맥락이 끊기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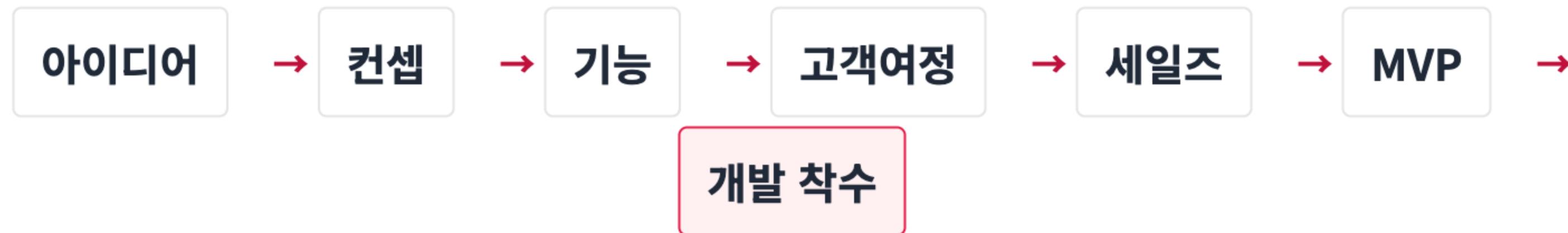
기획 접근법 플로우

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각 단계마다 마크다운 문서가 하나씩 생겨요.

루프백: 점점 똑똑해지는 지침



각 단계의 지침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1. 일단 지침 써서 시켜본다
2. 결과 보고 아쉬운 점 찾는다
3. rules/컨셉.md, rules/기능.md 를 개선한다
4. 새 채팅 열어서 다시 시켜본다
5. 반복



Custom Command = 나만의 단축키

매번 물어보는 것:

→ "이 아이디어로 누가 어떤 문제를 겪어?"

→ "핵심 가치랑 차별점이 뭐야?"

→ "서비스 컨셉 마크다운으로 정리해줘"

→ **/appkit.new** 하나로 끝!

데모: 명령어 실행

/appkit.new 야놀자 같은 테니스 코트 예약 앱

서비스 개요.md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코트타임 |

| 핵심 컨셉 | 직장인의 주말 운동을 쉽게 만드는 예약 서비스 |

| 타겟 고객 | 30-40대 직장인, 테니스 입문자~중급자 |

| 핵심 문제 | 전화 예약 번거로움, 가격 불투명 |

| 해결책 | 3초 예약, 실시간 가격 비교 |

하루 만에 나오는 것들

- ✓ 서비스 컨셉 문서 (마크다운)
- ✓ 기능정의서 (마크다운)
- ✓ 페르소나/고객여정 (마크다운)
- ✓ 세일즈 메시지 (마크다운)
- ✓ MVP 범위 정의 (마크다운)

전부 AI가 바로 읽고 구현할 수 있는 형태

솔직한 기대치

AI가 뽑아준 건 **초안입니다.**

한 **50-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검토하고, 맥락 입히고, 다듬어야 해요.

**이 초안을 기반으로 AI랑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
대화 내용이 바로 마크다운 파일에 반영 → 바로 구현**

마크다운 초안 문서를 개발자한테 넘기는 것

= **바이브 기획 산출물**

마크다운 → 전통 산출물

내용은 이미 다 있어요. 형태만 바꾸면 돼요.

→ 노션

"노션에 배포해줘" 하면 됨

→ PPT

"슬라이드 구성해줘" 하면 정리
됨

→ 기능정의서 양식

기능정의서 만들어줘" 하면 정
리됨

양식을 HTML로 먼저 만들어두세요.

*html → pdf, ppt*로 해서 제출

핵심: 순서가 중요하다

✗ 잘못된 순서

처음부터 PPT로 만든다

- 수정할 때마다 PPT 수정
- 개발자한테 줄 때 또 정리
- AI한테 줄 때 또 변환

✓ 올바른 순서

마크다운으로 먼저 (AI가 읽는 형태)

- 수정도 마크다운에서
- 개발자한테 줄 때 그대로
- 보고용으로만 PPT 변환

소스는 마크다운, 보고용은 변환해서

핵심: 순서가 중요하다

✗ 잘못된 순서

처음부터 PPT로 만든다

- 수정할 때마다 PPT 수정
- 개발자한테 줄 때 또 정리
- AI한테 줄 때 또 변환

✓ 올바른 순서

마크다운으로 먼저 (AI가 읽는 형태)

- 수정도 마크다운에서
- 개발자한테 줄 때 그대로
- 보고용으로만 PPT 변환

소스는 마크다운, 보고용은 변환해서

루프백: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1] 서비스 컨셉

↓ 결과 확인 → 아쉬움 발견



루프백 사이클

프롬프트 수정 → 다시 실행 → 결과 비교 →

지침에 반영 → 반복

→ 결과가 별로? → 프롬프트 고쳐서 다시

→ 괜찮아졌어? → 그 프롬프트를 지침에 저장

예시: 루프백 돌린 과정

1 처음 시도

"야놀자처럼 테니스 코트 예약하는 앱 기획해줘"

결과: 별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2 루프백 1회차

"서비스 컨셉, 타겟 고객, 핵심 문제, 해결책 정리해줘. 마크다운 표로."

결과: 좀 나아짐.

3 루프백 2회차

"이런 형태로: | 항목 | 내용 | ..."

결과: 원하는 형태!

4 저장 → 명령어로

/appkit.new 만 치면 같은 결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이번 주: 기록하기

AI한테 뭘 물어봤지?

→ "00 정리해줘"

결과가 어땠지?

→ 70% 만족 / 표 형태가 아쉬움

다시 어떻게 물어봤지?

→ "마크다운 표로 다시"

다음 주: 패턴 찾기

→ "나 맨날 '표로 정리해줘' 불이네"

→ "항상 '예시 들어서' 요청하네"

그 다음: 명령어 만들기

AppKit 참고해서 나만의 명령어 만들기

핵심 메시지 3가지

1

시대가 바뀌었다

구현 능력 → 시니어 몇 명이
면 충분
도메인 지식 → 새로운 희소
자원

2

산출물 형태를 바꾸세요
PPT → 마크다운
사람이 읽는 형태 → AI가 읽
는 형태

3

나만의 방식을 만드세요
프롬프트 기록 → 패턴 찾기
→ 템플릿

개발자들은 솔직히 생각해요.

"기획도 하루이틀이면 되지 않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세요.

산출물의 형태를 바꾸고, 나만의 방식을 만들고,
진짜 하루이틀 만에 해내는 겁니다.



AppKit 오픈소스

github.com/rupy1014/appkit

도메인 전문가의 시대

개발자들은 솔직히 생각해요.

"기획도 하루이틀이면 되지 않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세요.

산출물의 형태를 바꾸고, 나만의 방식을 만들고,
진짜 하루이틀 만에 해내는 겁니다.



AppKit 오픈소스

github.com/rupy1014/appkit

도메인 전문가의 시대